

##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Achievement Motivation on Learning Agility of Paramedic Students

Eun-Kyung Jung\*, Duk-Won Kim\*\*, Sang-Yol Shin\*

\*Professor, Dept. of Paramedicine,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Professor, Dept. of Paramedicine, Jeonju Vision College, Jeonju, Korea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s among achievement motivation, self-leadership, and learning agility i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MT) students and identified the factors influencing learning agility. The participants were 185 EMT students from four-year and three-year universities located in J Province and G Metropolitan City, and the study employed a descriptive survey design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utilized validated tools to measure achievement motivation, self-leadership, and learning agility.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with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achievement motivation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learning agility ( $\beta=0.741$ ,  $p<0.001$ ). Students with higher academic grades demonstrated significantly higher learning agility, and first-year students exhibited higher learning agility compared to second- and third-year students. Additionally, students with stro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extroverted personalities scored higher in learning agility. This study suggests that strengthening achievement motivation and self-leadership and introducing educational programs to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re necessary for EMT students to adapt effectively to changing environments.

▶ **Key words:** Paramedicine, Self-leadership, Achievement motivation, Learning agility, Paramedic education, Paramedics

### [요 약]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의 성취동기, 셀프리더십, 학습민첩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학습민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J도, G광역시 응급구조학과 3년제와 4년제 응급구조학과 재학생 185명이었다. 연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분석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설문은 성취동기, 셀프리더십, 학습민첩성을 측정하기 위해 검증된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SPSS 25.0을 통해 기술통계,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성취동기는 학습민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beta=0.741$ ,  $p<0.001$ ). 학점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습민첩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1학년 학생이 2학년 및 3학년 학생보다 학습민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가 좋고 외향적인 성격의 학생들이 학습민첩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성취동기와 셀프리더십을 강화하고 대인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 **주제어:** 응급구조학과, 셀프리더십, 성취동기, 학습민첩성, 교육과정, 응급구조사

- First Author: Eun-Kyung Jung, Corresponding Author: Duk-Won Kim, Sang-Yol Shin
- \*Eun-Kyung Jung (jungk22@wku.ac.kr), Dept. of Paramedicine, Wonkwang University
- \*\*Duk-Won Kim (grandduke88@naver.com), Dept. of Paramedicine, Jeonju Vision University
- \*Sang-Yol Shin (since2000@wku.ac.kr), Dept. of Paramedicine, Wonkwang University
- Received: 2025. 04. 09, Revised: 2025. 05. 22, Accepted: 2025. 05. 22.

## I. Introduction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며 빠르게 변화하며 불확실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시대에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가 요구된다[1]. 그 역량 중 하나가 변화와 새로운 것에 두려움 없이 관심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인 학습민첩성이며, 이 분야는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2].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이다[3].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환자평가와 응급처치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의학적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술 또한 예측 불가능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1]. 따라서 현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데 개방적이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응급의료종사자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예비 응급구조사에게는 학습민첩성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민첩성은 처음 접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존의 경험과 학습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4]. 학습민첩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계발에 적극적이며,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인다[5]. 또한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여 가설을 세우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킨다[5].

이러한 학습민첩성이 높을수록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학습한 내용을 직무에 잘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지므로[8,9], 기업과 조직의 인재 양성과정에서 중요한 역량으로 간주되 왔으며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10,11].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도 학습민첩성은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 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13]. 따라서 과학 및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응급의료 환경과 응급의료종사자의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민첩성을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응급구조학과 대학생들은 졸업 후 응급구조사로 성장하여, 병원 전 단계에서는 응급환자를 최초 대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로서 환자평가를 수행하고, 병원 단계에서는 의사의 보조 역할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응급구조사는 전문직으로서 최신의 실무 지식을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하며, 새롭게 도입되는 최신 기술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학습민첩성은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응급구조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민첩성 관련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의 학

습민첩성과 그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성취동기는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려는 욕구로 성공적인 성장에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다[14].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학과 적응과 자기주도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5,16]. 또한 성취동기는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도 보고되고 있다[17].

셀프리더십은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고방식과 전략적 행동을 의미한다. 셀프리더십은 학습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응급구조학과 대학생들은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통해 개인의 태도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8]. 또한,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기 성장을 이끌 수 있다[19]. 선행연구에 따르면 셀프리더십은 문제해결능력[17], 자기효능감[20]에 영향을 미쳐 대학생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성취동기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며, 셀프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취동기와 셀프리더십은 학습민첩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성취동기와 셀프리더십이 학습민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주로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시행되었으며,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취동기, 셀프리더십, 학습민첩성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학습민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한 교육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Method of Research

### 1. Participants of the study

연구 대상자는 J도의 4년제 대학교 1개교와 3년제 대학교 2개교, G광역시의 4년제 대학교 1개교의 응급구조학과 재학생 18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기간은 2024년 6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었다.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Effect size .15,  $\alpha(P)$  .05, Power .95, 예측 요인 10개를 기준으로 적정 표본 수는 172명으로 확인되었다. 설문지는 연구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URL을 배포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은 연구 대상자가 자기평가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수집

된 모든 자료는 개인정보를 무기명으로 표기하여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였다. 총 198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13부를 제외한 18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Research tools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을 이용하였고, 설문 구성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문항(성별, 학년, 졸업학년, 입학 동기, 성적, 자신에 대한 만족도, 전공 만족도, 대학생할 만족도, 성격, 대인관계), 성취동기 28문항, 셀프리더십 35문항, 학습민첩성 25문항으로 총 9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1.1 Self-Leadership

셀프리더십은 Houghton과 Neck[21]이 개발한 도구를 Shin 등[22]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5문항으로 자기목표설정 5문항, 자기보상 3문항, 자기 처벌 4문항, 자기관찰 4문항, 자기단서 2문항, 자연적보상 5문항, 성공적 수행 상상 5문항, 자기대화 3문항, 신념과 가정분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oughton과 Neck[2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0이었다.

### 1.2 Achievement Motivation

성취동기는 Lim과 Kang[23]이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여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8개 문항으로 열정 11문항, 희망 7문항, 모험심 6문항, 자신감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im과 Kang[2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1이었다.

### 1.3 Learning Agility

학습민첩성은 Gravett과 Caldwell[8]이 개발한 도구를 Lim 등[1]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사고민첩성 6문항, 대인민첩성 6문항, 변화민첩성 6문항, 결과민첩성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민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im 등[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9이었다.

## 3. Data analysis

자료 분석은 SPSS 2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성취동기, 셀프리더십, 학습민첩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

타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취동기, 셀프리더십, 학습민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성취동기, 셀프리더십, 학습민첩성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학습민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Results

### 1. General Characteristics

연구대상자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90명(48.6%), '여성'이 95명(51.4%)이었다. 학년은 '3학년'이 52명(28.1%), 2학년이 50명(27.0%)로 나타났다. 입학 동기는 '적성'이 140명(75.7%)으로 가장 많았다. 성적은 '3.9-3.0'이 104명(56.2%), '≥4.0'이 46명(24.9%)로 나타났다. 자신에 대한 만족도는 111명(60.0%)이 '만족하다'를 선택하였고, 대인관계는 100명(54.1%)이 '보통이다'를 선택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8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90	48.6
	Female	95	51.4
Grade	1st	51	27.6
	2nd	50	27.0
	3rd	52	28.1
	4th	32	17.3
Educational system	3-year course	89	48.1
	4-year course	96	51.9
Entering school motivation	Aptitude	140	75.7
	Recommendation by other people	19	10.3
	High employment rate Depending on the grade	18	9.7
Grade point average	≥4.0	46	24.9
	3.9-3.0	104	56.2
	≤2.9	35	18.9
Satisfaction of one-self	Satisfied	111	60.0
	Moderate	57	30.8
	Dissatisfied	17	9.2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25	67.6
	Moderate	44	23.8
	Dissatisfied	16	8.6
Satisfaction of university life	Satisfied	117	63.2
	Moderate	57	30.8
	Dissatisfied	11	5.9
Personality	Introverted	118	63.8
	Extroverted	67	36.2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82	44.3
	Normal	100	54.1
	Bad	3	1.6

Table 2. Difference of Self-Leadership, Achievement Motivation and Learning Ag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Leadership		Achievement Motivation		Learning Agility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Male	3.08±0.33	1.354 (0.177)	3.18±0.43	3.516 (0.001)	3.09±0.34	2.011 (0.046)
	Female	3.00±0.51		2.93±0.52		2.97±0.45	
Grade	1st <sup>a</sup>	2.75±0.51	2.652 (0.050)	3.25±0.53	5.180 (0.002) a>b	3.21±0.45	5.542 (0.001) a>b
	2nd <sup>b</sup>	2.90±0.53		2.89±0.51		2.90±0.42	
	3rd <sup>c</sup>	3.04±0.37		3.08±0.43		2.99±0.35	
	4th <sup>d</sup>	3.02±0.29		2.96±0.39		2.98±0.28	
Educational system	3-year course	2.99±0.45	-1.524 (0.129)	3.02±0.51	-0.837 (0.404)	3.00±0.41	-0.733 (0.464)
	4-year course	3.09±0.41		3.08±0.48		3.05±0.40	
Entering school motivation	Aptitude	3.04±0.62	3.663 (0.013)	3.12±0.49	3.255 (0.023)	3.06±0.40	2.081 (0.104)
	Recommendation by other people	2.70±0.55		2.90±0.31		2.87±0.36	
	High employment rate	2.79±0.63		2.82±0.60		2.99±0.45	
	Depending on the grade	2.55±0.29		2.85±0.35		2.82±0.35	
Grade point average	≥4.0 <sup>a</sup>	3.03±0.67	6.652 (0.002) a>c	3.14±0.55	6.089 (0.003)	3.13±0.40	6.515 (0.002)
	3.9-3.0 <sup>b</sup>	3.04±0.55		3.10±0.44		3.05±0.37	
	≤2.9 <sup>c</sup>	2.63±0.64		2.80±0.49		2.82±0.43	
Satisfaction of one-self	Satisfied <sup>a</sup>	3.03±0.59	1.856 (0.159)	3.25±0.47	29.927 (<0.001) a>b,c	3.16±0.41	17.602 (<0.001) a>b,c
	Moderate <sup>b</sup>	2.83±0.67		2.77±0.37		2.80±0.29	
	Dissatisfied <sup>c</sup>	2.97±0.57		2.70±0.34		2.91±0.35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sup>a</sup>	3.01±0.61	1.598 (0.205)	3.17±0.47	14.631 (<0.001) a>b	3.11±0.39	11.296 (<0.001) a>b
	Moderate <sup>b</sup>	2.87±0.64		2.73±0.45		2.79±0.39	
	Dissatisfied <sup>c</sup>	2.78±0.55		3.05±0.42		3.02±0.31	
Satisfaction of University Life	Satisfied <sup>a</sup>	3.04±0.62	3.296 (0.039) a>b	3.18±0.48	12.606 (<0.001) a>b,c	3.14±0.40	14.119 (<0.001) a>b,c
	Moderate <sup>b</sup>	2.78±0.56		2.85±0.37		2.83±0.30	
	Dissatisfied <sup>c</sup>	3.03±0.70		2.74±0.68		2.82±0.50	
Personality	Introverted	3.00±0.46	-1.771 (0.078)	2.97±0.48	-3.133 (0.002)	2.97±0.43	-2.500 (0.013)
	Extroverted	3.11±0.38		3.20±0.48		3.12±0.33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sup>a</sup>	2.99±0.69	1.297 (0.276)	3.28±0.52	21.035 (<0.001) a>b>c	3.30±0.32	12.177 (<0.001) a>b
	Normal <sup>b</sup>	2.95±0.53		2.89±0.37		2.90±0.31	
	Bad <sup>c</sup>	2.40±1.07		2.34±0.35		3.17±0.45	

2. Difference of Self-Leadership, Achievement Motivation and Learning Ag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성취동기, 셀프리더십, 학습민첩성을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은 학년(p=.050), 진학동기(p=.013), 평균 성적(p=.002)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취동기는 성별(p=.001), 학년(p=.002), 진학동기(p=.023), 평균 성적(p=.003), 자신의 만족도(p<.001), 전공만족도(p<.001), 대학생활 만족도(p<.001), 성격(p=.002), 대인관계(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습민첩성은 성별(p=.046), 학년(p=.001), 평균 성적(p=.002), 자신의 만족도(p<.001), 전공만족도(p<.001), 대학생활 만족도(p<.001), 성격(p=.013), 대인관계(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3. Correlations of Self-Leadership, Achievement Motivation and Learning Agility

셀프리더십, 성취동기, 학습민첩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과 성취동기 간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셀프리더십과 학습민첩성 간의 상관관계수는 .18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013), 성취동기와 학습민첩성 간의 상관관계수는 .777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1)(Table 3).

Table 3. Correlations of Self-Leadership, Achievement Motivation and Learning Agility

	Self-Leadership	Achievement Motivation
Achievement Motivation	0.224 (p=0.001)***	
Learning Agility	0.182 (p=0.013)**	0.777 (p<0.001)***

\*\*p<0.1 \*\*\*p<.001

#### 4. Factors Influencing Learning Agility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본 연구의 자료가 회귀분석에 적합한지 진단하기 위하여 회귀모형의 가정, 등분산검정을 위해 잔차 도표를 살펴본 결과, 등분산성이 확인되었고,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tson 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1.7236으로 나타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는 공차한계가 .491-.812로 1.0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지수(VIF)가 1.232-2.063으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회귀모형에 대한 투입변수의 설명력은 69.1%였다.

주요 변수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성취동기는 학습민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beta=.741, p<.001$ ). 학년은 1학년보다 2학년( $\beta=-.140, p=.031$ ), 3학년( $\beta=-.167, p=.005$ )에서 학습만족도가 낮았다. 평균 성적이 '4.0이상'보다 '2.9이하'( $\beta=-.125, p=.034$ )에서 학습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대학생활 만족도가 '만족'보다 '보통'( $\beta=-.116, p=.040$ )에서 학습만족도가 낮았으며, 대인관계가 '좋은'보다 '나쁨'( $\beta=-.232, p<.001$ )에서 학습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Table 4).

Table 4. Factor Influencing Learning Agility

Characteristics	Categories	B	$\beta$	T	P
Self-Leadership		0.012	0.019	0.384	0.701
Achievement Motivation		0.608	0.741	12.068	<0.001
Gender (/Male)	Female	0.027	0.033	0.669	0.505
Grade (/1st)	2nd	-0.128	-0.140	-2.175	0.031
	3rd	-0.151	-0.167	-2.866	0.005
	4th	-0.056	-0.052	-0.897	0.371
Grade point average (/≥4.0)	3.9-3.0	-0.031	-0.038	-0.687	0.493
	≤2.9	-0.130	-0.125	-2.133	0.034
Satisfaction of one-self (/Satisfied)	Moderate	-0.018	-0.021	-0.371	0.711
	Dissatisfied	-0.039	-0.028	-0.511	0.610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Moderate	0.075	0.078	1.337	0.183
	Dissatisfied	0.016	0.011	0.231	0.818
Satisfaction of University Life (/Satisfied)	Moderate	-0.103	-0.116	-2.072	0.040
	Dissatisfied	-0.069	-0.040	-0.799	0.426
Personality (/Introverted)	Extroverted	-0.024	-0.029	-0.599	0.550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Normal	-0.022	-0.027	-0.517	0.060
	Bad	-0.748	-0.232	-4.443	<0.001

R<sup>2</sup>=0.691 p<0.001

#### IV. Discussion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취동기, 셀프리더십, 학습민첩성의 관계를 분석하고, 학습민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첫째, 성취동기는 학습민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beta=.741, p<.001$ ). 이는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새로운 학습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강해진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였다[10,14].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살펴보면, 성취동기가 자기주도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으며[16],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취동기는 학습민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1].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취동기와 학습민첩성 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선행연구에서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14]. 이는 성취동기가 높은 학생일수록 임상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민첩성이 향상될 수 있으며 결국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급변하는 응급의료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처치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성취동기가 중요하며, 이는 학습민첩성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학습 목표를 구체화하고 개인의 동기 부여를 강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셀프리더십은 성취동기와 학습민첩성 간 직접적으로 매개하지는 않지만,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성취동기를 통해 학습민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이 대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및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와 일치한다[17]. 선행연구에서 성취동기는 학습민첩성에 직접적인 매개효과를 보였으며, 셀프리더십은 성취동기와 학습민첩성과의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였다[1]. 응급의료현장은 빠른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이 요구되므로, 셀프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이 실무 능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학점과 학년에 따른 학습민첩성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점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학습민첩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1학년 학생이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학습민첩성을 보였다. 비록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간호대학생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선행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이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4학년 학생들이 2학년과 3학년 학생들보다 더 높은 학습민첩성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24]. 하지만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경우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습민첩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국가고시 실기 평가 및 필기 시험에 대한 학업 부담에 기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간호학과는 4년제 정규 과정으로 점진적인 학습 강화 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응급구조학과는 3년제 또는 4년제로 편성되어 있다. 3년제 응급구조학과 수업에서는 실무 집중형 커리큘럼으로 실무 역량 중심 교육이 집중적,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3년제 학생들의 학습민첩성이 저하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제 편성에 따른 학습민첩성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년제와 4년제 커리큘럼에 따른 고학년 학생들의 학습민첩성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학습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대인관계와 성격은 학습민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일수록 학습민첩성이 높았으며,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학생들이 내향적인 학생들보다 더 높은 학습민첩성을 보였다. 이는 셀프리더십과 대인관계가 대학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9].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자와 학생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협동 학습을 통해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특정지역의 응급구조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습민첩성의 주요 요인을 분석하였지만,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학습민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여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만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민첩성과 관련된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 V. Conclusion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급변하는 응급의료 환경에 적응하고 학습 민첩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적 전략 수립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성취동기와 셀프리더십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 REFERENCES

- [1] Khlim and Islec, "The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on learning agility of nursing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7, No. 1, pp. 80-90, Feb. 2021. DOI: 10.5977/jkasne.2021.27.1.80
- [2] Eklee, Syjung and Jtson, "Conditional effect of school support between learning agility and academic burnout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Vol. 16, No. 2, pp. 225-234, Dec. 2021. DOI: 10.15715/kjhcom.2021.16.2.225
- [3] Yhshin, Jwkook and Bkkim, "Job satisfaction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influencing factor: a literature review",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ol. 25, No. 1, pp. 193-203, Apr. 2021. DOI: 10.14408/KJEMS.2021.25.1.193
- [4] M. M. Lombardo and R. W. Eichinger, "High potential as high leaders",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 39, No. 4, pp. 321-329, 2000.
- [5] G. A. O. Drinka, "Coaching for learning agility: The importance of leader behavior, learning goal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Doctoral thesis,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2018.
- [6] C. L. Bedford, "The role of learning agility in workplace performance and career advancement", Doctoral thesis, Minnesota University, Mennnesota, 2011.
- [7] J. Connolly, "Assessing the construct validity of a measure of learning agility", Doctoral thesis,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Miami, FL, 2001.
- [8] L. S. Gravett and S. A. Caldwell, *Learning agility: The impact on recruitment and retention*, New York: Springer, 2003.
- [9] R. W. Eichinger, M. M. Lombardo and C. C. Capretta, *FYI for learning agility*, Minneapolis: Lominger, 2010.
- [10] Tjkim and Hslee, "A Study on the Influence of Learning Agility on Commitment to Organizational Change and Moderating Effect of Job Autonomy",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 48, No. 1, pp. 27-46, Mar. 2016. DOI: 10.23840/agehrd.2016.48.1.27
- [11] G. Dai, K. P. Meuse and K. Y. Tang, "The role of learning agility in executive career success: The results of two field studies", *Journal of Managerial Issues*, Vol. 25, No. 2, pp. 108-131, 2013.
- [12] Yssong, Hslee and Chim,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agility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non-metropolitan area",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7, No. 6, pp. 1-20, Dec. 2018. DOI: 10.37210/JVER.2018.37.6.1
- [13] Hslee,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agilit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challeng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0, No. 1, pp. 197-204, Jan. 2019. DOI: 10.15207/JKCS.2019.10.1.197

- [14] Dspark and Gwnam, "A Correlation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for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EMT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Vol. 11, No. 3, pp. 47-64, Dec. 2007.
- [15] Mhjung, Ksshin and Smpark, "The effect of mentoring program for increasing of major adjustment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3, No. 1, pp. 1-24, Jan. 2005.
- [16] Gckim and Akya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hievement Motiva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in University Freshmen", *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 31, No. 2, pp. 696-697, Apr. 2019. DOI: 10.13000/JFMSE.2019.4.31.2.574
- [17] Ybpark and Mskim, "The Influence of Leadership Life Skills and Achievement Motivation on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3, No. 5, pp. 494-503, Dec. 2017. DOI: 10.11111/jkana.2017.23.5.494
- [18] Yseo, "Effects of Self-Leadership Program on Mental Health and Ego-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2, No. 2, pp. 893-908, Dec. 2010.
- [19] Yslee, Shpark and Jkkim,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6, pp. 229-240, Jun. 2014.
- [20] Ejkim,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chievement goal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of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4, No. 12, pp. 303-326, Dec. 2014.
- [21] J. D. Houghton and C. P. Neck,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 17, No. 7, pp. 672-691, Dec. 2002. DOI: 10.1108/02683940210450484
- [22] Ykshin, Mskim and Yshan,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RSLQ) for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6, No. 3, pp. 377-393, Jan. 2009.
- [23] Salim and Sekang,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the Achievement Motivation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7, No. 3, pp. 575-593, Sep. 2013.
- [24] Yskim and Hjle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7, No. 4, pp. 359-368, Nov. 2021. DOI: 10.5977/jkasne.2021.27.4.359

## Authors



Eun-Kyung Jung received her M.S. degree in 2013 and her Ph.D. degree in 2019, both in Public Health fr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 Gwangju, Korea. Dr. Jung joined the Department of Paramedicine at

Wonkwang University in Iksan, Korea, in 2025, where she currently serves as a Professor.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ystems and paramedicine.



Duk-Won Kim received the M.S. and Ph.D. degrees in Public Health from Chosun University, Korea, in 2018 and 2022, respectively. Dr. Kim has worked as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MT) at

both a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and an industrial company. Since 2020, he has been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aramedicine at Jeonju Vision College.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public health and emergency care.



Sang-Yol Shin received his M.S. degree in Public Health from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 2008 and his Ph.D. in Medicine from Wonkwang University, Korea, in 2020. Dr. Shin joined the Department of

Paramedicine at Wonkwang University in Iksan, Korea, in 2024, where he currently serves as a Professor.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healthcare and emergency care